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박 광 배

신 민 섭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고등학생들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사이의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물 요약하면, 첫째, 자살생각의 정도에는 학년 차이가 없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학년 학생들이 자살생각을 하는 이유와 기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셋째, 1학년에게는 목표수준이, 2, 3학년에게는 현재의 학업수준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넷째, 현실수준 (현재의 학업수준)이 변하지 않는 경우, 2학년에게는 할 수 있다는 의욕을, 3학년에게는 목표설정을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 다섯째, 3학년생들이 목표-현실의 괴리를 내적으로 귀인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목표-현실의 괴리가 지각된 통제 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자살은 일반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고독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까뮈는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자살은 “심장의 고요 속에서 준비된 행위(an act prepared within the silence of the heart)”라고 썼다(Camus, 1955).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개인적인 현상으로 조명하는 경우,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의 갈등, 학업성적, 이성문제, 감상적인 성격, 동료집단내에서의 부조화, 돌발적인 위기적 상황, 심지어는 호르몬의 부조화등이 모두 청소년 자살생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자살을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Durkheim, 1951). 자살을 문화적인 현상으로 개념화하는 경우, 한국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화-사회적 요인으로서 대학입시를 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현재까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한두개의 고립된 사례에서 자살하는 학생의 유서등을 통하여 고등학생의 자살이 대학입시문화와 연관되어진다고 추측되어 왔으나, 문제는 그 연관이 현재의 한국고등학생들 사이에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가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대학입시와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사이의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성개념들—예를 들면 대학입시와 자살생각—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그 구성개념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사회제도적인 개념으로서의 “대학입시”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지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대학입시는 구성개념을 심리적 변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입시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달성해야 할, 혹은 극복하여야 할 목표(goal)이다. 대학입시를 목표라는 심리적 실체로 개념화하면 그것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에 관한 몇가지 이론적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그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의 기존이론을 이용하였다. 하나는 Edwin A.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Roy F. Baumeister의 자살이론이다.

목표설정이론

목표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중의 하나는 소위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Edwin A. Locke에 의하여 1968년에 발표되었다(Locke, 1968). 이 이론은 원래 근로자들의 직무동기를 증진시키는 요인들에 관한 경영학과 산업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 속에 내재하는 하나의 공통분모로서 찾아낸 목표설정이란 개념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동기(motivation) 및 직무수행(performance)에 관여하는 목표의 중요한 속성으로서 목표난이도(goal difficulty)와 설정된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goal commitment)가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목표난이도와 직무수행 사이의 正的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즉, 목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직무수행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Tubbs(1986)는 56개의 실증적 연구들을 정밀히 개관하여 목표난이도와 직무수행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지수인 효과크기(effect size)를 0.82로 산출하였는데 이것은 사회과학에서는 보기 드물게 높은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또한 Mento 등(1987)도 70개의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한 비슷한 논문에서 효과크기 0.55를 발표하였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목표난이도와 직무수행 사이의 강한 관계는 목표가 피험자 스스로에 의해 설정되느냐, 아니면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Lee, Locke, & Latham, 1989).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목표가 직무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설정된 목표에 대한 진지한 심리적 관여와 헌신이 선행되어야한다(Loke, 1986; Locke & Latham, 1984).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란 정해진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자하는 마음의 준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능케하는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목표에 부여하는 중요성 혹은 주관적 가치(goal valence)가 있다(Locke, Frederick, Lee & Bobko, 1984; Bandura & Cervone, 1986; Hollenbeck & Klein, 1987; Lee, Locke, & Latham, 1989). 자기효능감과 목표달성에 두는 주관적 가치가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높고,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높으면 직무수행수준이 증가한다(Earley, 1985; Erez & Arad, 1986; Erez & Zidon, 1984). 외부적 권위에 의해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만약 그 권위가 당사자의 자기 효능감과 가치를 동시에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난이도와 직무수행 사이에 강한 正的인 관계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입시가 목표라면, 학업동기는 직무동기, 그리고 성적수준은 일종의 직무수행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동기가 증가하고 성적수준이 증가하는 동안은 자살생각이 감소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동기 및 성적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것이다. 높은 동기수준은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자살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목표달성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동기수준과 자살생각 사이에 否的인 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예측이 합리적이다. 만약 목표설정이론이 한국고등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수행에도 적용된다면, 목표가 높이 설정될수록(난이도가 높은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자기효능감과 중요성)가 클수록 학업동기와 성적수준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생각이 감소하리라고 예상된다. 다시 말하여, 자살생각은 목표난이도 및 심리적 관여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Baumeister의 자살이론—자신으로부터의 탈출

최근에 Baumeister (1990)는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문화인류학에서의 자살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여 매우 흥미로운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자살은 근원적 원인에서 출발하여 몇개의 매개원인을 거치는 인과사슬의 결과이다. 이 모델은 자살의 근원적 원인으로서는 두가지의 요인을 상정한다. 그 첫번째는 준거(standard)와 현실 사이의 괴리이다. 준거란 한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희망사항, 기대치(expectation) 혹은 이상(ideal)으로서 앞서 기술한 목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의 난이도 자체를 증시하는 반면, Baumeister는 그의 자살이론에서 준거 자체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준거와 개인적 현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이 차이의 크기와 자살할 확률 사이에 正的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개인의 현실수준이 고정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목표설정이론과 Baumeister의 이론은 자살에 대하여 정반대의 예측들을 도출한다. 즉, 현실수준이 고정되어있을 때, 목표설정이론은 목표가 높을수록 자살확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Baumeister의 이론은 목표가 높을수록 자살확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Baumeister는 자살의 두번째 근원적 원인으로서는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을 들고있다. 준거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만약 내적으로 귀인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우울증이 초래되고, 이 우울증이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상태를 유발한다. 인지적 몰락상태란 모든 사상에 대하여 의미부여를 거부하고 사물과 현상을 피상적, 물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락된 인지상태는 자살을 거부하는 내적 장애를 제거하는 기제가 되

어 결국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신과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으로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만약 Baumeister의 자살이론이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면,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목표와 현실에 있어서의 학업실력 사이의 괴리가 그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근원적 원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이 괴리는 다른 특별한 환경적 이유가 없는 한 내적으로 귀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학입시문화는 수험생 주변의 가족과, 친지, 스승들이 입시수험생의 수험준비에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투자를 하는 문화이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준거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외적요인에 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괴리가 내적으로 귀인되면 우울증에 영향을 줄 것이며, 우울증이 증가하므로써 자살생각이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와 자살생각이 관계를 가질 것이고, 이 관계는 우울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목표설정이론과 Baumeister의 자살이론에 입각하여 네가지 가설이 설정되었다: (1)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는 자살생각에 否的인 영향을 준다(목표설정이론); (2) 목표의 난이도는 자살생각에 否的으로 영향을 준다(목표설정이론); (3) 목표와 현실 사이의 차이는 자살생각에 正的으로 영향을 준다(Baumeister 이론); (4) 자살생각에 대해서 목표-현실의 차이가 가지는 영향은 우울증에 의해 매개된다(Baumeister 이론).

방 법

피험자

서울의 강남, 강북에 위치한 남, 녀 3개 고등학교 1, 2, 3, 학년생 718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1학년이 279명, 2학년이 287명, 3학년이 142명이었고(10명은 학년에 대한 응답을 하

지 않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중 남자가 375명, 여자가 343명이었다. 표집 대상은 인문계 주간 고등학생으로 회수된 질문지중 응답이 결여된 자료를 제외한 65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조사 도구

각 개인의 배경 자료및 우울증, 자살 생각, 그리고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목표를 측정하는 질문들이 사용되었다. 우울 척도로는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Kovacs, 1981)와 Zung Depression Inventory (ZDI; Zung, 1965)가 사용되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이 사용되는데, 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가능한한 원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이를 변형시켜서 사용하였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 시도를 이끌지는 않으나 이것이 이후에 보일 자살 행동의 중요한 예언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Beck et al., 1979; Simons & Murphy, 1985),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의 심각성을 SSI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들은 저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번역한 것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로부터 모두 높은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CDI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고 ZDI는 .77, 그리고 SSI의 신뢰도 계수 α 는 .87(검사의 원저자인 Beck에 의한 α 는 .89)였다.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목표설정에 대한 문항들은 본 논문의 저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부록에 수록되어있다. 그 8개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SCLGOAL: 대학입시에 있어 목표로 삼는 (가고싶은) 학교;
- (2) MJRGOAL: 대학입시에 있어 목표로 삼는 (가고싶은) 전공계열;
- (3) SCLREAL: 현재의 수준에서 갈 수 있는 학

교;

- (4) MJRREAL: 현재의 수준에서 갈 수 있는 전공계열;
- (5) SCLPSBL: 목표로 삼은 (가고싶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
- (6) MJRPSBL: 목표로 삼은 (가고싶은) 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 (7) SCLIMPT: 목표로 삼은 (가고싶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의 중요성;
- (8) MJRIMPT: 목표로 삼은 (가고싶은) 전공 계열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

목표에 관한 변인들중 SCLGOAL과 SCLREAL은 피험자가 응답한 대학교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변인들이다. 대학교의 입학난이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20명의 고등학생들을 별도로 표집하여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는 대표적인 대학교들을 입학난이도에 따라 서열분류를 하게 하였다. 별도의 표집을 한 이유는 대학교의 숫자(56개)가 많아서 수백명에 달하는 피험자 자신들에게 서열분류를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난이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쓰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 난이도와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심리학 연구의 본질에 충실 하려는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관 때문이었다. 각 대학교에 할당된 서열의 평균치로서 그 대학교의 심리적인 입학난이도가 산출되었고, 피험자가 응답한 대학교가 가지는 난이도에 의하여 위의 두 변인이 코딩되었다. 따라서 SCLGOAL과 SCLREAL의 높은 값은 각각 피험자가 가고 싶거나 갈 수 있다고 응답한 대학교의 난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MJRGOAL과 MJRREAL도 비슷한 방식에 의하여 각각 가고 싶거나 갈 수 있는 전공계열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코딩되었다. 그러나 전공계열은 그 숫자(13개)가 많지 않으므로 피험자들 자신이 그 난이도를 서열분류하였고 (부록 참조), 그 모든 피험자에 의해 분류된 서열의 평균

치에 의하여 각 전공계열의 난이도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MJRGOAL과 MJRREAL의 높은 값은 각각 피험자가 가고 싶거나 갈 수 있다고 응답한 전공계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목표변인들인 SCLPSBL, MJRPSBL, SCLIMPT, 그리고 MJRIMPT는 모두 부록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점 척도에 의한 평정치들이다.

절차

질문지들은 피로나 이월 효과 (carry-over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열하여 한 데 묶어서 제시하였는데, 해당 고교의 담임 교사가 학급 단위로 수업 시간 중에 이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완료하는데 약 한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결 과

분석에 포함된 각변인의 기술통계들이 학년별로 표1에 제시되었다. 목표달성의 가능성 판단

(SCLPSBL과 MJRPSBL)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표로 삼는 (가고 싶은) 학교의 수준(SCLGOAL)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목표로 삼는 전공계열(MJRGOAL)의 수준과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전공계열의 수준(MJRREAL)이 3학년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학교에 대한 기대수준이 감소하는데 따른 반작용이라고 생각된다. 즉, 목표로 삼는 대학교 수준을 낮추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전공계열의 수준을 높여서 잡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표1에서 주지해야할 사항은 가고 싶거나 갈 수 있는 대학교 및 전공계열 (SCLGOAL, MJRGOAL, SCLREAL, 그리고 MJRREAL)에 대한 응답을 회피한 피험자가 다른 변인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다. 그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목표나 현실수준과악이 불확실하기 때문일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달성의 중요성 (SCLIMPT, MJRIMPT)이 높게 평정되는 경우 (0-3범위에서 평균이 모두 2.5이상), 만약 목표가 불확실하고 또한 현실수준이 애매하면 불안과 긴

표1. 분석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학년차이를 위한 F검증

변인 ^a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차이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F ^b
SCLPSBL (0-3)	2.34	0.67	274	2.21	0.62	281	1.96	0.82	137	13.41**
SCLIMPT (0-3)	2.68	0.64	275	2.69	0.62	281	2.56	0.71	140	2.26
MJRPSBL (0-3)	2.35	0.63	270	2.26	0.64	275	2.04	0.80	137	10.55**
MJRIMPT (0-3)	2.77	0.55	269	2.75	0.57	274	2.67	0.61	137	0.11
SCLGOAL (1-10)	8.22	1.17	226	7.97	1.41	249	7.26	1.83	120	15.80**
MJRGOAL (1-13)	6.86	2.11	257	6.47	1.69	267	7.34	1.76	127	9.96**
SCLREAL (1-10)	5.79	3.01	177	6.14	2.72	176	5.40	2.71	90	2.58
MJRREAL (1-13)	5.68	2.24	201	5.47	1.99	222	6.45	2.23	106	8.43**
CDI (0-54)	14.77	7.18	276	14.45	6.92	283	13.57	7.22	142	1.34
ZDI (20-40)	27.47	3.66	273	27.59	4.01	285	27.32	4.07	141	0.27
SSI (0-38)	9.79	6.73	268	10.13	6.19	282	8.64	6.41	141	2.51

a 괄호속의 숫자는 범위 (range)이다.

b 통계검증은 무의미코딩 (dummy coding)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 $p < .05$, ** $p < .01$

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우울증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변인들에 응답을 하지 않은 피험자들을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검증력 (power)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에 대한 응답여부를 따로 변인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SCLGOAL에 대한 응답 여부는 MSG에, MJRGOAL에 대한 여부는 MMG에, SCLREAL에 대한 응답 여부는 MSR에, 그리고 MJRREAL에 대한 응답 여부는 MMR에 각각 1과 0으로 코딩하였다(1이 무응답을, 0이 응답을 의미한다).

이상의 변인들을 이용하여 앞서 기술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하여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표2에 제시되었다. 응답 여부변인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절차, 이론적 근거, 장점 및 주의할 점에 대하여는 Cohen &

Cohen(1983)을 참고하기 바란다.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는 네개의 변인들(SCLPSBL, MJRPSBL, SCLIMPT, MJRIMPT)로 구성된 변인군에 의해 측정되었다. 목표의 난이도 역시 네개의 변인들(SCLGOAL, MSG, MJRGOAL, MMG)로 구성된 변인군에 의해 대표되었다. 현실수준도 네개의 변인들(SCLREAL, MSR, MJRREAL, MMR)로 구성된 변인군이다. 우울증은 두개의 변인들(CDI, ZDI)로 구성된 변인군이다. 자살생각은 종속변인으로서 SSI 하나의 변인으로 대표되었다.

가설1은 표2의 회귀방정식 1에 의해 검증된다.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2학년과 3학년에서 지지되었고 1학년에 지지되지 않았다. 심리적 관여를 나타내는 네변인의 비가중합(unweighted sum)과 종속변인인 SSI의 상관계수는 2학년과 3학년에 마이너스

표2. 중다상관자승과 그 차이들에 대한 유의도 검증

방정식	독립변인	R ²			
		1학년 N=244	2학년 N=264	3학년 N=134	전체 N=652
1.	SCLPSBL SCLIMPT MJRPSBL MJRIMPT	0.034	0.066**	0.095**	0.034**
2.	SCLGOAL MSG MJRGOAL MMG	0.045*	0.023	0.054	0.008
3.	SCLREAL MSR MJRREAL MMR	0.032	0.038*	0.097**	0.028**
4.	SCLGOAL MSG MJRGOAL MMG SCLREAL MSR MJRREAL MMR	0.060	0.061*	0.165**	0.031**
5.	SCLGOAL MSG MJRGOAL MMG SCLREAL MSR MJRREAL MMR Interactions ^a	0.123	0.133**	0.297**	0.063**
6.	CDI ZDI SCLREAL MSR MJRREAL MMR	0.430**	0.257**	0.391**	0.328**
7.	CDI ZDI SCLGOAL MSG MJRGOAL MMG SCLREAL MSR MJRREAL MMR	0.436**	0.263**	0.408**	0.330**
R ² 차이 (Semipartial R ²)					
	방정식4-방정식3	0.028	0.023	0.068*	0.003
	방정식5-방정식4	0.063	0.072	0.132	0.032
	방정식7-방정식6	0.006	0.006	0.017	0.002

a 상호작용은 16개의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 $p < .05$ ** $p < .01$

부호를 가지므로 (-0.172와 -0.267), 2학년과 3학년에서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2는 표2의 회귀방정식 2에 의해 검증된다. 목표난이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1학년에서만 지지되었고 그밖에 집단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1학년에서 SCLGOAL과 MJRGOAL의 회귀계수 B들은 모두 마이너스 부호(-1.118과 -0.175)를 보였다. 즉, 1학년의 경우, 목표난이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목표설정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설3은 표2의 회귀방정식 3, 4, 5,에 의해 검증된다. 회귀방정식 3과 4의 R² 차이는 한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공변량분석 (Analysis of Covariance)이 된다. 그 조건이란 공변인 (covariate)과 독립변인 (indepdent variable)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회귀방정식 3과 4의 R² 차이는 현실수준 (SCLREAL, MSR, MJRREAL, MMR)을 공변인으로 통제 한 후 목표난이도 (SCLGOAL, MSG, MJRGOAL, MMG)가 자살생각에 대해 가지는 효과이다. 현실수준이 통제된 후의 목표난이도의 효과는 곧 목표-현실 사이의 괴리효과이다. 우선 이러한 공변량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방정식 5와 4로부터 산출된 R²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도 표2에 제

시되었다. 회귀방정식 5는 회귀방정식 4와 같고 단지 목표난이도와 현실수준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들이 더 첨가되었다. 현실수준과 목표난이도가 각각 4개씩의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인들은 4×4=16개이다. 회귀방정식 5와 4의 R² 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방정식 3과 4의 R² 차이를 목표-현실 사이의 괴리효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 목표-현실 사이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3학년에서 지지되었고 1학년과 2학년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현실수준이 고정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목표난이도가 자살생각과 否的인 관계를 가지는지 (목표설정이론), 아니면 正的인 관계를 가지는지 (Baumeister 이론)를 알아 보기 위하여 회귀방정식 4에 의해 구해진 SCLGOAL과 MJRGOAL의 회귀계수 B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표3에 제시되었다.

표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학년과 2학년의 경우는 현실수준이 고정되어있는 경우 목표의 난이도 (SCLGOAL, MJRGOAL)가 자살생각과 否的인 관계를 가지는 반면, 3학년의 경우는 正的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1학년과 2학년들에서는 목표의 난이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고, 3학년의 경우에는 목표난이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 그러나 2학년에서는 목표수준의

표3. 현실수준이 고정되었을 때 목표난이도가 자살생각과 가지는 관계의 방향

변인	B계수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SCLGOAL	-0.943	-0.411	0.663	-0.084
MJRGOAL	-0.136	-0.378	0.760	-0.157
MSG	-1.618	0.531	1.285	0.216
MMG	-1.439	-2.293	1.376	-0.471
SCLREAL	-0.325	-0.282	0.062	-0.191
MJRREAL	-0.097	-0.062	-1.100	-0.369
MSR	0.016	-1.517	-2.381	-1.109
MMR	-0.747	2.735	1.618	1.227

효과가 독자적으로 혹은 현실수준이 통제된 후에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목표설정이론이 1학년에서만 지지되었고, Baumeister의 자살이론이 3학년에 지지되었다.

가설4는 가설3이 지지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설3이 지지되지 않은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가설4가 의미가 없다. 가설3이 지지되는 경우에, 3학년, 가설4는 회귀방정식 6와 7에 의해 검증된다. 회귀방정식 6와 7의 R^2 차이는 우울증의 효과가 통제된 후에도 목표-현실 사이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대하여 직접적 효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명한다. 이 R^2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목표-현실 사이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가지는 효과를 우울증이 매개(mediate)한다고 본다.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가설은 3학년에 지지되었다. 즉, 3학년의 경우에는 목표-현실 사이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만 이것은 우울증이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피험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오직 가설1만이 지지되었다. 즉,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한 중요한 암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의 자살생각의 정도에는 학년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표1참조), 그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기제가 각 학년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1학년의 경우에는 목표수준(난이도)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인 반면, 목표-현실의 괴리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1학년들이 현재의 학업실력수준을 심각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실수준을 나타내는 변인들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경우(회귀방정식 3), 1학년에 의미있게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2=0.0032$, $F(4, 239)=1.97$. 그들에게 있

어서는 대학입시까지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따라서 대학입시때까지의 학업실력수준은 가변적이라고 간주되는듯하다. 현재의 학업실력수준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목표를 높은 수준에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의욕과 투지를 의미할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의욕과 투지라는 것은 1학년의 경우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암시된다. 심리적 관여는 본 연구에서 목표달성의 가능성과 중요성으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가능성 및 중요성 판단은 목표 및 그 수단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세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1학년생들의 경우 목표설정에 있어 아직 그 정도의 인지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만약 목표설정이 단순한 의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목표수준과 자살생각과는 본 연구의 1학년 피험자들에게서와 같이 당연히 옹호되는 관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자신감을 고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학년과는 달리, 2학년과 3학년에서는 목표수준이 아니라 현실수준(회귀방정식 3)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현실수준은 더 높은 유의도 수준에서 자살생각을 예측한다. 이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재의 학업수준이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 대한 심각한 고려에 의한 인지적인 저울질이 증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암시가 가지는 중요성은 2, 3학년들에게 있어서는 1학년에서와 같은 무조건적인 의욕의 고취가 효과적인 자살예방책이 못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말하자면, 그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책은 학업실력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점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2, 3학년에 목표-현실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대해 가지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목표에 대한 가능성 및 중

요성 판단이 심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목표와 현실 사이의 인지적 비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피험자와 적게 하는 피험자는 목표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2의 회귀방정식 2 참조). 그 두학년의 경우 자살생각의 차이는 현실수준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듯하다(표2의 회귀방정식 3 참조). 따라서 심리적 관여가 진행되는 과정은 주로 자신의 실력 혹은 능력에 대한 판단에 집중되는 것 같다. 실제로 목표달성의 가능성 및 중요성 판단은 목표수준 보다는 현실수준과 일반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2학년과 3학년에서 심리적 관여 변인들(SCLPSBL, MJRPSBL, SCLIMPT, MJRIMPT)이 목표수준변인들(SCLGOAL, MJRGOAL)과 가지는 상관계수의 평균은 0.066이고, 현실수준변인들(SCLREAL, MJRREAL)과 가지는 상관계수의 평균은 0.166이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1학년과는 달리 그 자기효능감이 현실적인 학업수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학년의 경우, 현실수준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과 목표와의 차이는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이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아마도 2학년들에게 있어서 목표수준의 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여, 현실수준에 따라 목표수준의 재조정이 현재 진행중이고, 따라서 목표수준에 대한 심리적 의미가 불확실하고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자살예방전략은 학업수준을 올리는 것 이외에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하여 별도로 시사되는 바가 없다. 그러나 2학년에 있어서 목표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업수준이 변하지 않는 경우, 자기효능감(가능성)을 증진시키므로써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때의 자기효능감은 목표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감소시

켜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표3의 회귀계수들(2학년의 SCLGOAL과 MJRGOAL)의 부호가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회귀계수들은 2학년에 있어서 학업수준이 동일한 경우 목표수준과 자살생각이 음의 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학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중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학년의 경우에는 목표-현실 사이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그 관계의 방향이 正的이다. 다시 말하면 3학년에 있어서는 현실수준이 동일하다면, 목표수준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3학년에서는 현실수준에 맞게끔 목표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예방전략으로서 2학년과 3학년의 경우는 공히 학업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2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노력을 하면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효능감을 주지시키고, 반면에 3학년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현실수준보다 높을 때 그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수준에 맞도록 그것을 재조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aumeister(1990)의 자살이론에 의하면 목표-현실의 괴리가 내적으로 귀인되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자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 이론 중 우울증에 의한 매개에 대한 부분은 목표-현실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인 3학년 집단에서 입증되었다. Baumeister의 이론이 정확하다면,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목표-현실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우울증에 의해 매개된다는 결과는 목표-현실의 괴리가 내적으로 귀인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특히 Seligman과 그의 동료들(Abramson, Garber, & Seligman, 1980)에 의해 발전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이론을 적용한다면, 3학년 학생들이 목표-현실의 괴리를 내적으로 귀인하되 자신의 능력과 같은 포괄적이고 안정된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목표-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3학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현실수준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괴리를 가늠하면 능력부족등과 같은 내적 요인에 귀인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인현상만이 우울증에 의한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있어 목표-현실의 괴리가 왜 생겼는지를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자에 의해 귀인할 것을 강제받지 않는 한). Baumeister의 자살이론이 한국의 고등학생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지지되지 않은 반면에 3학년에서 명확하게 지지되었다는 사실은 우울증에 의한 매개효과에 대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Hyland(1987)는 우울증이 유발되는 기제(mechanism)를 통제이론(control theory)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요점은 목표-현실의 괴리를 개인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통제할 수 없을 때, 즉 줄일 수 없을 때, 만약 이 통제상실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Hyland의 통제이론에 의하면 목표-현실의 괴리가 우울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그 괴리의 원인을 무엇인가에 귀착해야 할 필요는 없다. 1학년 및 2학년의 경우는 목표-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괴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따라서 지각된 통제가능성(perceived controllability)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3학년의 경우에는 그 괴리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희박한 통제가능성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되며 그것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목표-현실의 괴리에 대한 통제는 현실수준을 증가시키므로서도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목표수준의 감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3

학년에게 있어서 현실수준의 증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약 부모의 요지부동한 기대감 등과 같이 목표수준의 감소를 가로막는 요인이 있을 때 자살생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yland의 통제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Baumeister이론의 핵심인 목표-현실의 괴리와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가 지각된 통제가능성이 있다고 지각될 때는 괴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통제가능성이 없다고 지각될 때는 목표-현실의 괴리에 의하여 자살생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 론

만약 대학입시가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의 성격은 각 학년에서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방적인 접근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살생각 예방책이 학년에 따라 다르고, 그 일관성 결여로 인하여 피상담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은 일관성과 함께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의 경우 일관성은 자신과 생에 대한 전반적인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데서 찾아져야 하고, 그러한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대학입시와 같이 특정한 상담주제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처하는 합리성을 습득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학년의 경우 학업실력을 더 이상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수준을 낮추는 유연성을 주어 자신이 부딪치는 생에 대하여 보다 높은 통제력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Nietzsche(1931)에 의하면 자신과 생에 대한 전반적인 희망과 사랑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동경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동경을 포기할 때 생기는 허무를 딛고 서서 현실적인 자기를 긍정하는 합리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목표-현실의 괴리에 대한 귀인의 방향

과 그 속성을 파악하고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귀인한다는 믿기 힘든 전제하에), 만약 가능하면 자살생각 뿐만아니라 자살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생각을 증감시키는데 목표-현실의 괴리와 그 괴리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능성이 상호작용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후속연구에서의 쏫점은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목표-현실의 괴리가 귀인에 의해서 우울증 및 자살생각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지각된 통제가능성에 의해서 중개되어 그것들을 유발하는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부 록

- (SCLGOAL) 졸업 후 꼭 가고 싶거나 현재 목표로 삼은 대학교 (전공학과가 아님) 이름을 하나만 적으시오.
- (SCLREAL) 자신의 현재 실력이 입시까지 유지된다면 그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전공학과가 아님) 중 가장 좋은 학교를 하나만 적으시오.
- (SCLPSBL)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이 꼭 가기를 희망하거나 목표로 삼은 대학교 (전공학과가 아님)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입니까?
- (SCLIMPT) 자신이 꼭 가기를 희망하거나 목표로 삼은 대학교 (전공학과가 아님)에 진학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 (MJRGOAL) 졸업후 꼭가고 싶거나 현재 목표로 삼은 전공계열 (대학교가 아님) 이름을 하나만 적으시오.
- (MJRREAL) 자신의 현재 실력이 입시때까지 유지된다면 그 실력으로 갈 수 있는 전공계열 (대학교가 아님) 중 가장 좋은 계열을 하나만 적으시오.
- (MJRPSBL)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이

꼭 가기를 희망하거나 목표로 삼은 전공계열 (대학교가 아님)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입니까?

- (MJRIMPT) 자신이 꼭 가기를 희망하거나 목표로 삼은 전공계열 (대학교가 아님)에 진학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참고문헌

- Abramson, L. Y., Garber, J., & Seligman, M.E.P. (1980).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An attributional analysis. In J. Garber and M.E.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Bandura, A., & Cervone, D. (1986). Differential engagement of self reactive influence in cognitive motiv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8, 92-113.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Camus, A. (1955). *The Myth of Sisyphus: And Other Essays*. New York, Alfred A. Knopf.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rkheim, E.(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Earley, P. C.(1985). Influence of information, choice and task complexity upon goal acceptance, performance, and personal goa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 481-491.
- Erez, M., & Arad, R. (1986). Participative goal setting: Social, motivational and cognitive facto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591-597.
- Erez, M., & Zidon, I.(1984). Effect of goal acceptance in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69-78.
- Hollenbeck, J. R.,& Klein, H. J.(1987). Goal commitment and the goal setting process: Problems, prospects and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212-220.
- Hyland, M. E.(1987). Control theory interpretation of psychological mechanisms of depression: 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several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109-121.
- Krebs, D. L., & Miller, D. T.(1985). Altruism and aggression.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s.). New York: Random House.
- Lee, T. W., Locke, E. A., & Latham, G. P.(1989). Goal setting theory and job performance. In L. A. Pervin (Eds.).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1-326.
- Locke, E. A. (1968). Toward a theory of task motivation and incentiv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 157-189.
- Locke, E. A., Frederick, E., Lee, C. & Bobko, P.(1984). Effect of self-efficacy, goals, and task strategies o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241-251.
- Locke, E. A., & Latham, G. P. (1984). *Goal setting: A motivational technique that work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ento, A. J., Steel, R. P., & Karren, R. J. (1987). A meta-analytic study of the effects of goal setting on task perform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9, 52-83.
- Nietzsche, F. W. (1931). *Thus Spake Zarathustra*. Translated by Thomas Common and revised by Oscar Levy and John L. Beevers. London.
- Tubbs, M. E. (1986). Goal setting: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474-483.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wang B. Park

Min Sup Shin

Choongbuk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the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s related to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 Important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that (1) there is no grade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suicidal ideation, (2) nevertheless, the suicidal ideation in each high school grades involves different cognitive factors and mechanisms, (3) salient factors influenceing suicidal ideation are the levels of aspiration for the 1st graders and the levels of current academic proficiency for the 2nd and 3rd graders, (4) given a constant level of current academic proficiency, encouragement for the goal achievement for the 2nd graders and realistic (downward) readjustment of standards for the 3rd graders may help reduce the severity of suicidal ideation, (5) internal attribution of the aspiration-reality discrepancy may be harmful especially for the 3rd grade students, (6) for theoretical concern, the aspiration-reality discrepancy may interact with perceived controllability to influence suicidal ideation Viadepression .